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이 몸이 주저 가서 무어시 될소 하니 <보기>에서 '죽음'의 상황을 가정 →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서 소나무는 지조, 절개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 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리라
 색채 대비 → 화자의 충 강조 - 성삼문
- 나 꿈에 왔던 님이 씌여 보니 간 디 업네 <보기>에서 '꿈'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탐탐(耽耽)이 괴던 스랑 날 브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虛事) | 라 만정 자로 뵈게 하여라
 꿈에서 만나고자 한다 - 박효관
- 다 창(窓) 내고져 창을 내고져 이내 가슴의 창 내고져 <보기>에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 →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고모장죽* 세술장죽* ㄱ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저귀 수돌저귀* 크나큰 장도리*로 쭉쭉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져
 잇다감 하 답답홀 지 여다져나 불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고모장죽: 고무래 들창.

* 세술장죽: 문살이 가는 장지문.

* ㄱ로다지: 옆으로 밀면서 여는 문.

* 여다지: 안팎으로 밀거나 당겨서 여는 문.

* 암돌저귀 수돌저귀: 문설주에 박는 구멍 난 돌쩌귀와 문짝에 박는 돌쩌귀. 서로 짝을 이룸.

* 장도리: 못을 박거나 뽑는 데 사용하는 공구.

9001-0032

01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화자 모두 자신의 정서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강조하고 있다.
- ② (가), (나)의 화자 모두 외로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색채 대조를 통해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대상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 (나)의 화자는 대상을 거부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굳은 다짐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5번 선택지

(가) 독야청청 하리라를 통해 충에 대한 굳은 다짐

(나) 임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드러냄



9001-0033

02 (가)의 [백설] (A)과 <보기>의 [백설] (B)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서도 사실 위세를 떨치는 모습을 확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문제를 명확한 정답으로 만들고 싶다면 <보기>에서

백설 = 부정적 현실
구름 = 간신배들이 위세를 떨치는 현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정답이 명확해진다.

보기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매화는 지조, 절개, 충을 의미한다.

석양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매화가 홀로 서 있다는 진술을 통해(매화=화자)로 파악이 가능하다.

즉 간신배 속에서 홀로 충을 지키고 있는 화자의 모습으로 파악하면 된다.

- 이색

- ① A는 B와 달리 위세를 떨치고 있는 부정적인 존재로 드러나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화자가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 ③ A는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반면, B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 ④ A는 시간이 경과되고 있음을, B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와 B가 내리는 과정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9001-0034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논리 확인하기

1번 2번 4번 5번
모두 갈등의 해소를 기준으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선택지 3번만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한의 요소로 남게 된다고
진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택지 3번이
답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보기

시조의 갈등 해결 방식 중에는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상황을 상정해 보는 방식으로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거나, 현재 이후를 떠올리거나, 선언적 태도를 취하는 것 등이다. 이와 차원을 달리하는 갈등 해소 방식도 있는데, 이는 시간을 되돌려 놓거나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꿈을 갈등의 해소 방식으로 삼는 경우이다. 그 밖에 상황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 갈등을 극복해 보려는 희화화의 방식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시도 없이 갈등을 남겨 두게 된다면, 그 갈등은 시조 작품 안에서 한(恨)으로 나타나곤 한다.

- ① (가)에서는 ‘이 몸이 주저 가서’라고 현재 이후를 떠올리며 ‘~헛리라’라는 선언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군.
- ② (나)의 화자는 ‘탐탐이 괴던’ 임이 떠나고 없는 갈등 상황을 ‘꿈’이라는 비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군.
- ③ (나)의 화자가 ‘꿈속이 허사’임을 알고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적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한의 요소로 남게 되는군.
- ④ (다)는 창문의 종류와 창문을 만드는 과정을 수다스럽게 늘어놓아 괴로운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군.
- ⑤ (다)의 화자는 ‘이내 가슴의 창’을 만들고 ‘답답할 지 여다져’ 보겠다면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외(物外)에 조흔 일이 어부(漁父) 생애(生涯) 아니려나
 비 떠라 비 떠라 무욕적 삶 설의법

어옹(漁翁)을 온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무욕
 지국충(至菊翁) 지국충(至菊翁) 어스와(於思臥)
 스시(四時) 흥(興)이 흥가지나 추강(秋江)이 은듬이라 〈추(秋) 1〉

슈국(水國)의 ㄱ을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인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경 덩파(萬頃澄波)의 슬ㄱ지 용여(容與) 흐자*
 지국충(至菊翁) 지국충(至菊翁) 어스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룩 더욱 도타 속세를 거부하는 모습 〈추(秋) 2〉

옷 우희 서리 오디 치운 줄을 모를로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계절적 배경 = 가을
 도선(釣船)이 좁다 흐나 부세(浮世)와 언더흐니 대비
배 속세
 지국충(至菊翁) 지국충(至菊翁) 어스와(於思臥)
 ㉠ 넋일도 이리히고 모뢰도 이리흐자 〈추(秋) 9〉

송간 석실(松間石室)의 가 효월(曉月)*을 보자 흐니
 비 브터라 비 브터라
 ㉡ 공산 낙엽(空山落葉)의 길흘 엇디 아라불고
 지국충(至菊翁) 지국충(至菊翁) 어스와(於思臥)
 백운(白雲)이 좇차오니 녀라의(女蘿衣)* 므겁고야 〈추(秋) 10〉

Good man 인 화자를 쫓아오기에 백운은 긍정적 대상 백운과 하나가 되어 무겁다고 표현 한 것 = 물아일체
 구름 거든 후의 흰빈치 두텁거다

비 떠라 비 떠라
 텃디 폐식(天地閉塞)호디 바다흔 의구(依舊) 흐다*
계절적 배경 = 겨울
 지국충(至菊翁) 지국충(至菊翁) 어스와(於思臥)
 ㉢ ㄱ업슨 몃결이 겁 편 듯흐여 있다 〈동(冬) 1〉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물(景物)이 달랠고야
자연 속에서 경치에 대한 예찬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는 천텃옥산(千疊玉山)*
 지국충(至菊翁) 지국충(至菊翁) 어스와(於思臥)
선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동(冬) 4〉

이상향

㉔ 물ᄃᆞᆫ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흔고
 비 먹여라 비 먹여라
 지조, 짚개는 맞다.
 그러나 범주가 무욕이다.
 그러므로 무욕하는 삶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머흔 구름 흔(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그리온다 속세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구름은 긍정적 의미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딴훤(塵喧)*을 막는 또다 <동(冬) 8>

속세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파랑성은 긍정적 의미

어와 저므려 간다 연식(宴息)*이 만당토다
 비 붓터라 비 붓터라

㉕ ᄃᆞᆫ 눈 빠린 길 불근 곳 훑터딘 디 흥치며 거러가서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껴 잇자 <동(冬) 10>

- 윤선도, 「어부사시시(漁父四時詞)」

고전에서 어부는 무조건 무욕이다!!!!!!

* 용여허자: 한가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 녀라의: 은자의 옷.

* 만경류리: 유리처럼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

* 파랑성: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

* 연식: 편안히 쉼.

* 효월: 새벽달.

* 의구하다: 옛날과 같다.

* 천텃옥산: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

* 딴훤: 세속의 시끄러운 소리.

9001-0035

01 <추 2>와 <동 4>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 2>는 떠나온 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동 4>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추 2>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동 4>는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추 2>는 속세에 대한 거부감을, <동 4>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추 2>는 자연의 포용력에 대한 깨달음을, <동 4>는 낯선 곳에서의 고립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추 2>는 자연의 풍요에 대한 감사를, <동 4>는 각박한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배운 이론을 생각해봐!!!!!! = 무욕

선택지에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해보자.

선택지 1에서 그리움 = 처한 현실이 이별 // 동경은 가고 싶어하는 것을 뜻한다. 이 작품은 이미 자연속에 있는 것.

선택지 2에서 좌절감은 무욕과 관련 없음 //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는 속세로 돌아가고 싶은 것.

선택지 4에서 고립감은 무욕과 관련 없음. 오히려 무욕은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속에서 홀로 지내는 것을 좋아함

9001-0036

02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욕과 관련된 선택지 ① ㉑: **현재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누리려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② ㉒: 낙엽이 만들어 낸 가을 경치에 대한 경외감이 표출되고 있다.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길을 못 찾는 것을 말하는 것

③ ㉓: 끝없이 펼쳐진 물결의 모습을 비유를 활용해 나타내고 있다.

④ ㉔: 홀로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고 있다.

무욕과 관련된 선택지 ⑤ ㉕: **흥겨움**을 자아내는 경치를 색채의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선택지 5에서 ‘과시’는 **부정적 시어**로 이는 무욕의 처한 현실과 관련이 없는 선택지!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었더 흔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한 화자의 무욕적 삶에 대한 자부심
 넷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물아일체, 자연친화

[A]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대구 ->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

칼로 몰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대구, 비유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자연속에 있으니까 우는 것 아니다! 그래서 감정이입 아니다!
 관습적 표현이다!

[B]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단 자연속에서 지내는 것이 기뻐서 우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를소나 설의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 * 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 *으란 오늘 흔고 욱기(浴沂) *란 내일(來日) 흔새 대구

[C] 아춤에 채산(採山) 흔고 나조히 조수(釣水) 흔새 대구

긋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저 수도코 먹으리라 풍류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D]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홍간의 시각화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 * 하야 시냇 ㅁ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귄 거이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峯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려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밌는 듯
 옛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E] ^{겨울}功名(功名)도 날 씌우고 부귀(富貴)도 날 씌우니 대구, 주객전도, 의인법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었던 벼이 잇스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흐튼 혜음 아니 흥네 ^{속세의 생각}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었지 흥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울울리에: 뻑뻑하게 우거진 속에.

* 소요음영: 천천히 거닐며 나직하게 읊조림.

* 답청: 봄에 파란 풀을 밟고 노는 것.

* 욕기: 가수(沂水)에서 목욕한다는 뜻으로, 명리를 잊고 유유자적함을 이름.

* 마음완보: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9001-0042

01 읽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다운 자연을 그것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즐기고 있다.
- ② 선인들이 느꼈던 풍류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따르고자 하고 있다.
- ③ 부귀공명을 탐하지 않고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자연 속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과 자연의 이질적인 속성을 발견하여 자연에 동화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선택지를 통해 처한 현실을 확인하라!! 그리고 선택지 논리를 확인하라!!!!

1. 아름다운 자연을 그것의 주인 = 무욕과 물아일체
2. 풍류를 긍정적 = 무욕
3. 부귀공명 X, 자연에서 소박한 삶 지향 = 무욕
4. 자연 속 삶의 즐거움 = 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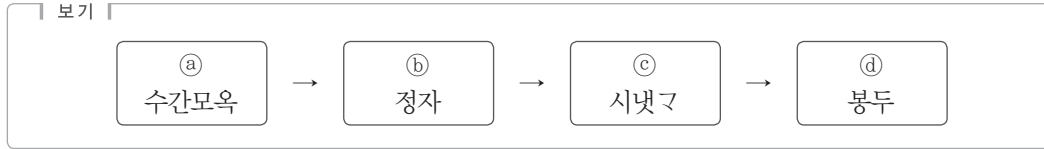
선택지 1,2,3,4를 통해 처한 현실 = '무욕' 확인 가능

5. 자신과 자연의 이질적인 속성???? 선택지 1 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주인 = 물아일체.
 그러므로 선택지 논리로 1번과 5번의 이상함 확인



9001-0043

02 윗글의 화자가 이동한 공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와 관련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홍진에 못친 분'과 달리 자연에 둘러싸여 삶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 공간이다.
- ② ㉡는 사방이 트여 있어 ㉠보다 열려 있는 공간으로, 아름다운 춘경에 동화된 화자가 '한중진미'를 느끼는 공간이다.
- ③ ㉢에서 화자의 의식이 지향하는 자연의 범위가 '산수(山水)'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지향 의식을 지닌 채 화자가 ㉣에 이르고 있다.
- ④ ㉣에서 화자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공간을 '무릉'에 가까운 곳이라고 하며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로의 이동은 화자의 정신적 경지의 상승과 대응하고 있으며, 속세의 부조리한 속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의할 것!!!!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 No!! 화자는 자연속에서 무욕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정서가 변하지 않는다. 계속 긍정적 정서이다!

이론을 기준으로 선택지 확인해보기!!!!

1. 홍진(=속세)와 달리 자연 -> 처한현실이 무욕임을 알아야 한다.
2. 아름다운 춘경 -> 무욕에서 자연, 경치가 나오면 무조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예찬
3. 지향하는 범위가 산수(=자연) -> 처한현실이 무욕임을 알아야 한다.
4. 무욕에서 '술'을 마시면 자연 속에서 '풍류'(=흥)이다.

9001-0044

03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정경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은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자연에서 생활하며 하고 싶은 일들을 열거하여 속세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미 자연속에서 무욕!!! 내적갈등은 없다.
- ④ [D]: 수평적 이동을 해 온 자연물에 의해 일어나는 수직적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제시하여 자연과 하나 된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⑤ [E]: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화체 확인할 것!!!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흔더이고 / 천상계 -> 임금이 계신 곳 / 지상계 -> 화자가 있는 곳 = 귀양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 하야 니별(離別) 흔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눈을 보라 가시^{임금}노고
 어와 ㉠네여이^{화자}고 ㉡내 스설 드려 보오 /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 즉흔가마는
 었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티야 교티야 어즈러이 흔똥디 /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 흔고 니러 안자 혜여 흔니 / 내 몸의 지은 죄 되 마티 빠혀 시니 귀양 -> 자책감
하늘히라 원망 흔며 사름이라 허물 흔랴 / 설워 플터 혜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되친 일이 이셔 이다 / 님을 피쳐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를 그 튼 얼굴이 편향 실 적 몇 날 일고 /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 하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되섯^{님 (임금)}노고 /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되 네와 긋 티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노고 화자와 임금이 함께 있을 때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프려나 아자 흔니 /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가
내 먹음 돌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쟈 말고 / 잡거나 떨거나 눅픈 되히 올라가니 님의 소식을 전할 사람
구름은 쿠니와 안개는 무스 임고 / 산천(山川)이 어둑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장애요소}거든 천 리(千里)를 브라보라 님 = 임금
출하리 플 그의 가 빅 길히나 보랴 흔니 / 브람이^{장애요소}야 물결이^{장애요소}야 어둥^{장애요소}정 되던^{장애요소}이^{장애요소}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결렸노고 / 강턴(江天)의 흔자 셔셔 디는 히를 구며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화자와 동일한 처지 = 주인을 잃은} 흔디이^고고
모첩(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고통스러운 공간}니 / 반벽^고청^고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야 불갓^고노고
 — 오르며 느리며 혜쓰며 바자니니
 저^고근^고덧 녁진(力盡)하야 꽃즘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썸의 님을 보니
옥(玉) 그 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간신배로 인해 고통스러운}세라 임금을 격정
먹음의 머근 말습 슬 꺾장 습자 흔니
 [A]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습^고인^고들 어이^고 흔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고조^고차 메여^고 흔니
오던^고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썩똥^{장애요소}턴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브라보^고니
 — 어옛^고븐 그림^고재 날 조출 썸이^고로다
출하리 긋여^고디^고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셔 /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고시 비최^고리^고라
 ㉠각시^고님 들이^고야^고쿠^고니와 구준^고비^고나 되쇼^고셔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9001-0045

0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화체 확인하는 문제는 꼭 나온다!!!
발화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할 것!!!!**

- ① ㉠은 ㉡을 과거에 본 적이 있다.
- ② ㉠은 ㉡이 어디서 살았는지 알고 있다.
- ③ ㉠은 ㉡이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은 ㉡이 과거에 살던 곳에서 떠난 이유를 몰랐다.
- ⑤ ㉠은 ㉡의 임이 ㉡과 헤어져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다.
2.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했니
3. 그런 생각 하지 마렴
4.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니

9001-0046

02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화자가 ㉠라고 말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구준비’와 ‘낙월’의 속성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보았다. 이를 참고하여 화자의 발화 의도를 추측해 보자.

구준비	낙월
빛이 없음.	빛을 냄.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함.	시각을 자극함.
국한된 공간에 내림.	광대한 공간을 비춤.
낮이든 밤이든 내릴 수 있음.	밤에만 볼 수 있음.
우울한 이미지를 지님.	청아한 이미지를 지님.

- ① ‘구준비’는 ‘낙월’과 달리 빛이 없어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임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침울한 심정을 나타내기**에는 달보다 비가 더 적절해.
- ② ‘낙월’은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 볼 수 없지만, ‘구준비’는 그런 경우에도 소리로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이 직접 비를 만져 볼 수도** 있잖아.
- ③ ‘낙월’은 온 세상을 다 비추지만, ‘구준비’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내리므로 **임에게 더욱 집중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
- ④ ‘낙월’은 밤에만 만날 수 있지만, ‘구준비’는 밤과 낮이라는 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내리면서 **아무 때나 임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어.
- ⑤ ‘낙월’은 맑고 우아한 느낌을 주지만, ‘구준비’는 우울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을 **원망**하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거야.

화자는 Good Man -> 임금과의 이별 = 귀양. 임금을 원망하면 충신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상한 선택지?? 생각할 것



9001-0047

03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배운 이론을 떠올려봐!!!

작품 속에서
님, 그대, 당신이 등장하면??
무조건 이별!!!!!!!

그렇다면 주제 의식은?????
무조건 그리움!!!!!!!!!!

(가)는 임금과의 이별
(나)는 남편과의 이별

보기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규원가」는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의 한스러운 생활과 고독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윗글과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윗글의 [A]와 <보기>의 [B]에서는 ‘**꿈**’이라는 공통 제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 및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재회에 대한 소망

그리움, 재회에 대한 소망

[B]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구비구비 쓴쳐서라
출하리 잠을 드러 **꿈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님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이별을 통한 고통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① [A]의 화자는 돌아다니느라 지쳐서 자연스레 **꿈**에 빠져들지만, [B]의 화자는 현실의 괴로움으로 인해 **꿈을 꾸려** 하는군.
- ② [A]는 [B]와 달리 꿈속 체험을 제시함으로써 **꿈을 깼을 때 화자가 느낀 아쉬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③ [A]의 화자는 [B]의 화자와 달리 **입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노력**이 꿈에서 입을 만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고 있군.
- ④ [A]의 화자는 꿈속에서 입과 재회할 수 있어서 **만족**해하지만, [B]의 화자는 **꿈속에서조차 입과의 재회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있군.
- ⑤ [A]에서는 ‘오던된 계성’이, [B]에서는 ‘디는 님’과 ‘우는 즈생’이 깨고 싶지 않은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해물의 역할을 하고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느실식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내려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라 설의법
 일장검(一長劍) 비기 주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여기 진목(勵氣瞋目)* 하야 대마도(對馬島)을 구어보니
 ㉠브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있고
 아득흔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 빗칠쇠
 선상(船上)에 배회(徘徊) 하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 하고
 어리 미친 회포(懷抱)에 헌원씨(軒轅氏)*를 애드노라 원망의 대상 1
 대양(大洋)이 망망(茫茫) 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비** 아니면 풍파 만 리(風波萬里) 맞기 어니 사이(四夷) 엇볼넌고
 무슨 일 하려 하야 **비** 못기를 비롯하고 왜구
 만세천추(萬世千秋)에 그 업슨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之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느다
 어즈버 씌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원망의 대상 2
 비 비록 잇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뵈 **비**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디도록 드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통분(痛憤)흔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밋나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미나 어더 너여
 만리장성(萬里長城) 늑히 사고 몇 만 년(萬年)을 사도편고
 늑디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흔 줄 모르로다
 어즈버 싱각하니 서불(徐市) 등(等)이 이심(已甚) 하다 원망의 대상 3
 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하는 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舟師) 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두어라] ^{화자}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 호로소니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잠사 각오(潛思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두어라' 이후
 황제(黃帝) 작주거(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배 = 무욕, 한가로움, 즐거움, 풍류, 흥
 장한(張翰) 강동거(江東去)에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 해활(天淸海濶)* 하다

‘두어라’를 기준으로 ‘배’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바뀐다.

배 = 전쟁을 통한 아픔, 비분강개, 배와 관련한 이들에 대한 비판과 원망

‘두어라’ 이후

배 = 무욕, 한가로움, 즐거움, 풍류, 흥

어너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밧골
 제일 강산(第一江山)에 부평(浮萍) ㄹ 흐 어부 생애(漁夫生涯)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딴 부쳐 든힐논고
 일언 닐 보견딘 비 삼긴 제도(制度)야
 지묘(至妙)흐 덧흐다마는 엇디흐 우리 물은 **우리 무리**
 ㄴ는 듯흐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툃고
 임풍 영월(臨風咏月)호디 흥(興)이 전혀 업는 게오
 ㉠석일(昔日) 주중(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풍류**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 장창(大劍長槍)뿐이로다 **전쟁**
 혼가지 빅언마는 가진 비 다라니 / 기간(其間) 우락(憂樂)이 서로 ㄹ지 못흐도다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보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노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디라마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흐야 해추 홍모(海醜兇謀)*에 만고수(萬古羞)을 안고 이셔
 백분(百分)에 흐 가지도 ㄹ 시셔 브려거든 / 이 몸이 무상(無狀)흐들 신자(臣子)ㅣ 되야 이셔다가 **임진왜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뵈옉고 늘거신들 **신하 = 충**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너 각(刻)에 이즐넉고 **임금에 대한 충은 잊은 적이 없다 = 충 설의법**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흐다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병중(病中)에 드러시니 /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흐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좃고
 발 업슨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흐믈며 이 몸은 수족(手足)이 ㄹ자 잇고 명맥(命脈)이 이어시니
 서절구투(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홀소나
 ㉣비선(飛船)에 둘러드려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에 낙엽(落葉)가치 헤치리라
 칠종칠금(七縱七擒)을 우린들 못 흘 것가
 준피 도이(叢彼島夷)*들아 수이 곁항(乞降)흐야스라
 항자 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티 섬멸(殲滅)흐라
 오왕(吾王) 성덕(聖德)이 욱병생(欲竝生)흐시니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요순 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셔
 일월 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朝復朝)흐얏거든
 전선(戰船) 툃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晩)흐고
 추월 춘풍(秋月春風)에 눕히 베고 누어 이셔
 성대(聖代) 해불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흐노라

-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 *여기 진목: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뜸.
- *가왕불구: 이미 지나간 일을 허물하지 않음.
- *해추 흉모: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략.
- *준피 도이: 꾸물거리는 저 섬나라 오랑캐.

- *현원씨: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배와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짐.
- *천청 해활: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음.
- *서절구투: 쥐가 도둑질하듯 하고 개가 남의 것을 훔치듯 함.
- *해불양파: 바다에 물결이 일지 아니함.

9001-0048

0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배경이 되는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② ㉡: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과거와 대조적인 현재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인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④ ㉤: 의문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9001-0049

0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은
<보기>가 기준이다

<보기>와 기준이
다르면 정답이다!!!!!!

보기

노계 박인로는 조선의 혼란기였던 16, 17세기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는 다른 양반들과 달리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했던 경험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박인로의 작품에는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표출되기도 한다. 「선상탄」은 박인로가 부산에 통주사(統舟師)로 부임하여 국경을 지키며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쟁과 관련한 관념적인 접근을 보여 주고 있으며, 씩씩한 기상을 살려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다짐과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 ① ‘진동영’에 내려와서 ‘병이 겁’더라도 앓아 있지 못하겠다는 것에서 전란의 현장에서 느끼는 **책임감**을 엿볼 수 있군.
- ② ‘대마도를 구어보’며 배를 처음 만들었던 ‘현원씨’를 원망하는 것에서 전란의 원인에 대한 **관념적**인 인식을 발견할 수 있군.
- ③ ‘일엽주’와 비교하면서 ‘판옥선’을 타며 느끼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도외시했던 양반에 대한 반감을 읽어 낼 수 있군. **<보기>와 관련성이 없는 선택지**
- ④ 왜적을 ‘준피 도이’라고 칭하며 **항복**하라고 하는 것에서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씩씩한 기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임금의 ‘**성덕**’으로 ‘**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한다는 것에서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을 파악할 수 있군.



9001-0050

03 두어라와 그러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어라’를 통해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한 화자의 자책감이 드러나고, ‘그러나’를 계기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두어라’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시각이 드러나고, ‘그러나’를 계기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 ③ ‘두어라’를 통해 화자가 현실적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그러나’를 계기로 화자의 현실적 고민이 해소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 ④ ‘두어라’를 통해 과거의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그만두려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러나’를 계기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⑤ ‘두어라’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이 드러나고, ‘그러나’를 계기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화자의 예상이 바뀌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9001-0051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진시황: 진나라의 황제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섬에 수천 명의 사람을 보냈다고 함. 이들이 일본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설이 있음.
- ㉡ 장한 강동거: 이백이 장한이라는 옛 인물을 언급하며 장씨 성을 가진 벗이 벼슬을 버리고 강동으로 떠난 것들을 서운해하면서 시를 지은 바 있음. 장한은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고향의 음식이 먹고 싶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함.
- ㉢ 사제갈, 생종달: 제갈량이 죽은 후 제갈량을 본뜬 나무 조각상을 수레에 앉혔는데, 종달이 이를 보고 놀라 도망갔다고 함.
- ㉣ 칠종칠금: 제갈량이 남만의 왕인 맹획을 일곱 번 놓아 주고 일곱 번 사로잡았다고 함.
- ㉤ 요순: 요임금과 순임금. 중국 고대 전설상의 임금으로, 두 임금이 왕위에 오른 뒤에는 태평성대가 지속되었다고 함.

선택지를 올바르게 바꾸면!!!!!!

- ① ㉠을 활용한 것은 ‘왜’와 대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야기시킨 대상에 대한
- ② ㉡을 활용한 것은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없는 처지로 인한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보기>의 범주는 ‘무욕’ 선택지의 범주는 ‘이별’
- ③ ㉢을 활용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 ④ ㉣을 활용한 것은 ‘왜’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을 활용한 것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난을 일으킨 원인

꽃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내 돌아와
문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법석
들어 보니 며칠 전에 끼넛거리 떨어져서
호박으로 죽을 쑀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뺏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의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대화체 확인 할 것

누가 네게 훔치랬나 회초리 꾸중 호되네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A]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밭 주인에게 땀땀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오릉 중자* 작은 청렴 내 아니 달갑다네
[B]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만 권 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부르랴
밭 두 패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

苦雨一句徑路滅
城中僻巷烟火絕
我從太學歸視家
入門譁然有饒舌
聞說罌空已數日
南瓜鬻取充哺歎
早瓜摘盡當奈何
晚花未落子未結
隣圃瓜肥大如瓠
小婢潛窺行鼠竊
歸來效忠反逢怒
孰教汝竊筐罵切
嗚呼無罪且莫嗔
我喫此瓜休再說
爲我磊落告圃翁
於陵小廉吾不屑
曾有長風吹汝倒
不然去鑿生金穴
破書萬卷妻何飽
有田二頃婢乃潔

문제 해결

본래는 청렴해야 하지만 지금은 가난하기 때문에 청렴으로 가난을 해결 할 수 없다.

박지원, 정약용 = 실학자

-> 민중의 삶이 가난, 고통 -> 연민, 지배층에 대한 비

- 정약용, 「남과탄(南瓜歎)」

*오릉 중자: 오릉에 살던 진중자. 진중자는 형이 의롭지 못하다 하여 홀로 떠나 오릉에서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짐.

9001-0058

01 읽글의 시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논리를 확인하라!!!!

1번 태학
= 현실적 문제와 동떨어진 공간

4번 만 권 서적
= 태학과 범주가 같다. 학문과 관련된 선택지 이므로 이 역시 현실적 문제와 동떨어진 공간이다. 그러므로 끼넛거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① ‘태학’은 ‘야단법석’이 일어난 ‘집’과 구별되어 현실적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열매’가 맺지 않은 ‘꽃’은 노력의 성과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계집종’은 ‘끼넛거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박을 훔쳐 ‘충성’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만 권 서적’은 화자가 관심을 기울인 대상으로, ‘끼넛거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밭 두 패기’는 화자가 갖지 못한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화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번 문제를 통해서 처한 현실은 ‘가난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5번에서 ‘밭 두 패기’는 화자가 갖지 못하고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화자에게 필요한 대상입니다.



9001-0059

02 [A]와 [B]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문제를 생각하면 가난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 계집종의 잘못이 아니다

- ① [A]에서 ‘나’는 계집종의 잘못을 꾸짖고 있고, [B]에서 ‘나’는 아내의 잘못을 꾸짖고 있다.
- ② [A]에서 ‘나’는 계집종에게 잘못을 고백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B]에서 ‘나’는 자신의 잘못을 한탄하고 있다. 3번 문제를 생각하면 가난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 계집종의 잘못이 아니다
- ③ [A]에서 ‘나’는 아내에게 밭 주인을 설득할 것을 청하고 있고, [B]에서 ‘나’는 밭 주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3번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현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기준이다
- ④ [A]에서 ‘나’는 아내에게 계집종의 죄 없음을 밝히고 있고, [B]에서 ‘나’는 아내에게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이고 있다.
- ⑤ [A]에서 ‘나’는 아내를 달래며 아내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제안하고 있고, [B]에서 ‘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조를 내비치고 있다.

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자조

9001-0060

03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약용의 문학 작품은 일상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는 그의 시가 보여 주는 시적 자아의 일상 생활인으로서의 성격, 일상적 소재와 신변잡사의 시적 수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정약용은 시란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은 실용을 중시한 정약용의 가치관과도 연결된다.

- ① ‘성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였다는 것은 궁핍한 현실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상황이라는 것으로, 시가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끼닛거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묘사한 것은 일상 생활인으로서 신변잡사를 통해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밥 짓는 연기’, ‘호박’, ‘항아리’, ‘밭’ 등을 언급한 것은 시에 일상적 소재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오름 중자 작은 청렴 내 아니 달갑다네’라고 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청렴하지 못한 지배층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아내 어찌 배부르랴’,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라고 한 것은 생계를 이어 나가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지 논리를 확인하라!!!!

1번에서 ‘궁핍한 현실’. 2번에서 ‘끼닛거리’. 5번에서 ‘생계를 이어 나가는 문제’를 통해 처한 현실은 가난한 현실입니다.

[2부] 적용 학습 79

선택지 4번은 ‘지배층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지 논리상 4번만 다릅니다. 지문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